

교내 종교갈등 표면화 될듯

동국대 석가여래불 십자가 훼손 '파장'

동국대 석가모니 청동입상(이하 석상)의 훼손 사건은 범죄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집단 단속에 주력하는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각원과 초파일 장엄음 코끼리 등이 붙여 있던 과거의 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번에 이교도에게 유린당한 석상은 그 상징적 의미를 놓고 보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잠재해 있는 종교간 갈등을 부각시키고, 그것에서 훼손의 이유를 찾고 있는 동국대의 움직임에 대해 교계는 '이례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교계의 이러한 반응은 그 동안 석림회·불교학생회·교수불자회 등 학내 불교단체들이 동국대에서의 기독교인 교직원과 선교 활동에 우려를 표명해 왔고, 최근에는 기독교학생회가 동아리연합회 공식 단체로 등록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동국대는 기독교학생회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해 왔는데, 5월 초 이 같은 관례를 깨고 UBF, YWAM, CCC, JOY 등 4개 기독교학생회들이 연합해 동국대 동아리연합회의 공식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석림회 등 학내 불교단체들은 절차상의 이유로 '인가'를 무효화시켰다. 석림회 기획실장 박선(선학과 2년) 학생은 "이 단체들은 '동국대 복음화'를 내세우고 있어, 학생동아리보다는 '선교단'에 가깝다'며 인가를 무효화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동국대는 이번 사건을 학내 불교 위상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동국대의 움직임을 긍정하면서도, "타종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배타성을 자극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 동안 학생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면서도, 교수나 직원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종교성을 따지지 않았던 동국대의 원칙 없는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다종교 사회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국대 학인스님 40여명은 8일 정각원에서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대중공성'을 열어 이번 훼손 사건의 책임을 승석구 총장에게 타종교 인사 보직 반대 시위를 신청한 후 인사 변경 등 7개 항목을 요구했다.

12일까지 답변을 요구해 놓고 있는 동



학인스님들 "기독교 동아리 활동 불허"

국대 학인스님들은 "동국대 행정 당국의 실천 의지를 가능하겠다. 만약 합당한 대답이 없을 경우, '이사장 스님 방문' '총장실 점거'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훼손 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종립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학내 모든 타종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마녀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다종교 사회에서는 타종교를 수용하면서, 불교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는 9일 석상 앞에서 동국대 전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 동국인 참회법회'를 봉행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개신교인의 반불교관" 전통문화교육 부재 때문

김종명 교수 '종교와 문화'서 지적

"한국 개신교인들이 불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원인을 정부수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통해 반불교관을 형성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명 서강대 종교학과 계약교수(사진)는 최근 서울대 종교연구소에서 발행한 <종교와 문화> 6집에 실은 '개신교의 대화-불교적 전제와 대안'이라는 글을 통해 보수적 개신교인들의 반불교관 형성 원인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진보적 개신교계가 주도해 온 종교대화운동은 한국의 종교상황 개선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이는 개신교 보수교단의 근본주의적 인식과 반불교관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교수 글 가운데 교육과정을 통해 개신교의 반불교관이 형성됐다는 내용의 요지.

당시(1945~48) 교육기관중 조선교육심의회는 이후 한국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특히 제1분과인 교육이념분과에서는 한국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편성된 교육과정에는 한국불교학을 포함한 전통문화 관련 과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왔다.

조선교육심의회위원들의 개인적 종교 성향이 교과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크다. 교육이념 마련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안재홍과 백낙준을 포함한 4명이 개신교인이었고, 역사적으로 한국 종교인중 개신교신자들의 종교성이 가장 높으며, 또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낙준은 미국 체류시 장로교 목사가 된 후 미군정하에서 서울대학교 재조직을 비롯한 교육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이래 60년부터 52년까지 이승만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의 양면을 가진 불교학은 한국의 제도권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개신교를 근대화, 민주화, 사회경제적 발전이란 개념의 틀 속에서 받아들인 반면, 불교를 퇴보적인 사회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 것도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불교 관련 과목이 소외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정성운 기자

크리스천아카데미 새 원장 김경재 교수

인터뷰



"어느 한 종교만이 독불장군 식으로 인권, 통일, 환경 등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보다 더 불교다위적이고, 기독교다위지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고 함께 정진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아카데미 새 원장으로 취임한 김경재 한신대 교수는 대화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감동 깊게 읽었다는 그는 "1600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가 민중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눈과 귀를 열어놓았는지, 불교에 대한 질타도 듣지 않았다."

대화의 첫 번째 목적은 갈등과 긴장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어 서로가 듣고 배운다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 특히 각 종교의 진리체현과 구도정신, 법열의 경지를 서로

받고 감화받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정의의 대상이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봐주길 바란다. 개신교 내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은 6:4 정도로 보수가 강하다. 보수적 개신교 중 광신적 개신교는 그 가운데서도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실상을 잘 알면 방법 나온다. 건전한 성직자와 불교인들이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한다." -대화의 파트너로서 불교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종교간 대화 목적 상호 창조적 변형

들려주고 배워서 삶을 중요하게 하자는 것이 두 번째이다.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 창조적인 변형이다. 대화를 빙자해 자기는 고정시켜놓고 상대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구상하고 계신 종교간 대화·협력 방안은, "앞으로 한국사회는 불교와 기독교의 협력 없이는 종단의 발전이 없음을 물론 한국사회도 불행해진다.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한국문화와 역사의 대의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 일이다. 각 종교 신문과 방송에 타종교 이해를 위한 기획물과 프로그램을 편성해 대화의 매체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해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해불 방지는 불가능한가. "기독교 지도자로서 우선 불교에 사죄한다. 광신지는 불교가 원지 모른다. 불교에 대해 교육

"물리학에 빛의 이중성이란 말이 있다. 종교도 유형화한다면, 불교는 과당적이고 기독교는 입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불교와 기독교는 자기의 유형적 특성을 지니되, 불교는 개체성 구체성을, 기독교는 만물을 회통하는 우주적 전일성을 보완해야 한다."

동국대에서 발생한 해불로 그 동안의 대화 노력이 손실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먼저 기독교 학생들이 동국대를 진리의 전당으로 인정해야 하며,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비전리로 선언하고 정부의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건학이념이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 얘기 들어보시오' 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생지도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불상을 훼손한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엄정함과 어루만짐이 동시에 필요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지면사정으로 '선과 21세기' 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은
인쇄인 :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6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20명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시험 성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보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유아교육 (유아포교)과	2년	■통신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언어과	2년	■주간20명 ■통신1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20명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불교학부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불교학부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불교학부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9 불교학부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신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3년 중의외대학과 1999년 개교
95.11 불교학부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6.11 불교학부 186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요부)
2000.2 제4회 졸업생 배출
국가인정 2급보육교사·조계종 포교사 95% 자격취득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불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불 거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9월학기)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6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 ~ 8 FAX. 511-1080
일본동경분교 TEL 055-233-1848
부산 분교: TEL 051-322-32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 홈페이지: WWW.Buddhapia.com
1135-887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교육부 학력 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6월 30일까지
- 문의처: 1135-887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2026~8 FAX: 02)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중국최고 국립관의과 대학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필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보증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 ※ 군입대 연기가능
-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o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대학: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789171
-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분
- 기간: 6박 7일
- 주요연수 내용: 당노병·중풍·비만·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 연수 후: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연: 10명 선착순
- 출발 일: 2000년 7월 23일 예정
-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02) 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